



라마의 탄생지로 알려진 아요디아의 라마아나 사원. 빛이 들어오는 사원의 벽은 온통 라마아나가 새겨진 대리석 판으로 가득 차 있다.

/인도 아요디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다르마’ 강조한 선과 악의 인물열전

(인간의 의무와 정의)

산디니게만 = 임동률 기자 exian@kwangju.co.kr

그리스·로마신화엔 타이탄(Titan)과 키클롭스(Kyklopes), 북유럽신화엔 록자이언트(Rock giant)가 있다. 신화나 설화는 일찍부터 인류에게 공포를 주거나 힘을 합쳐 악마를 물리친 거인이 존재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인을 찾자면 라마아나(Ramayana)에 등장하는 거인 쯔바카르나(Kumbhakarna)를 빼놓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주인공을 끝까지 돕는 의리와 헌신의 캐릭터도 존재한다. 라마의 동생 바라따(Bharata)가 그렇다. 바라따는 권력이나 명예보다 정의를 좇아 선을 돕는다.

거인 쯔바카르나에 대한 묘사는 흡사 갈리버 여행기를 떠올리게 한다.

“쯔바카르나를 깨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군대를 동원해야 했다. 그들은 쯔바카르나의 귓전에서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했다.”, “코끼리의 도움을 받아서 쯔바카르나를 몽둥이로 때리고 치고 밀고 당기고 흔들었다. 마침내 그가 눈을 뜨더니 두 팔을 마구 휘둘러, 그를 깨운 자들 상당수를 짓통깨버렸다.” (라마아나 中)

쯔바카르나는 여섯 달을 자고, 단 하루만 잠에서 깨어나는 데 그는 군대가 배에 올라가 공랑대에 겨우 눈을 뜰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 깨어나면 여섯 달치 음식을 단숨에 먹어버렸다. 라마의 정적인 악마 라바나의 동생으로, 상상할 초월할 정도의 큰 몸집을 가졌다. 몸을 부풀려 인도 남부에서 랑가(지금의 스리랑카)땅을 한걸음에 밟았던 원숭이인 하누만도 쯔바카르나의 주먹 한 방에 나가떨어졌을 정도다. 라마가 가진 가장 날카로운 화살이 그의 머리를 꿰뚫어 전사하게 만들기 전까지 랑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쟁에서는 수 천마리의 원숭이 군대를 일순간에 제압하면서 라마에게 굴욕을 줬다.

라마아나의 주요 악당이기도 하다. 매년 가을께 인도 전역에서 열리는 두세라(Dussehra) 축제는 악에 대항한 선의 승리를 의미하는 놀이로 치러지는데, 축제 마지막 날엔 라마와 싸운 악의 상징들을 화형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쯔바카르나 상이 태워지는 것은 당연지사.

두세라 축제 기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힌두교인이 가장 기대하는 행사 중 하나도 이 악마들의 화형식이다. 특히 쯔바카르나는 덩치에 맞게 크게 만들어지는 데 불이 불고 활활 타오르면 마치 자신이 라마가 돼 이 무지막지한 거인을 처단한 낭 기뻐한다.

쯔바카르의 갈리 사원 사제인 경가나트 자(51)씨는 “두세라 축제는

라마아나가 알려주는 ‘권선징악’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다시 깨우쳐 주는 역할을 한다”며 “라마의 가장 충신인 반면 엄청난 힘을 가진 하누만도 이기지 못한 쯔바카르나는 그 모습이 세세히 기술패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바라따는 어머니의 계락으로 라마를 쫓아내고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형 라마를 쫓아 숲으로 들어간 대표적인 헌신 캐릭터다.

라마아나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계속되면서 최근 부각되는 주인공 중 으뜸은 바라따다. ‘다르마’(Dharma, 인간의 의무와 정의)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라마아나에서 바라따야말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헌신의 정점에 선 인물이기 때문이다.

꼬살라 왕국의 왕인 다사라따는 첫째 아들 라마에게 왕권을 물려주려 하지만 바라따의 어머니인 둘째 왕비 까이케이이는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도록 책략을 꾸민다. 그녀는 오래전 꼬살라 왕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친정의 도움으로 위기를 이겨내며 왕이 두 가지 부탁을 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던 시골을 왕에게 상기시킨다. 약속은 두 가지. 바라따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 라마를 14년 동안 숲으로 보낼 것을 요구한다. 다사라따가 괴로운 목소리로 라마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하자, 라마는 “동생을 왕위에 앉히고, 저는 아버지의 명령을 실천하고, 숲에서 살 수 있으니 세 가지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며 숲으로 들어간다.

왕이 될 수 있었던 바라따는 오히려 어머니를 ‘사악한 뱀’으로 칭하며 분노한다. 세상의 소리를 여겼다. 그는 라마를 만나러 숲으로 따라가고 라마가 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마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끝내 거부한다. 바라따는 라마의 신발을 왕의 자리에 놓고, 그 밑에 앉는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라마가 14년 뒤에 돌아와서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선언한 뒤 14년을 섭정으로 통치한다. 수도인 아요디아를 떠나 난디그람이라는 작은 마을에 자리 잡고, 라마가 왕이 될 날을 위해 풀근 그를 도우며 악을 물리친다.

라마아나를 ‘내 영혼의 음악’으로 칭한 사브즈폴리 셴(56) 인디라간디 센터 소장은 “라마와 바라따는 형제애를 넘어 정의를 지키는 인간에게는 헌신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고 했다.

바라따는 라마아나에서 라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다. 라마아나의 라마가 ‘정의’ 그 자체인 까닭이다. 인간의 덕목 중에 헌신을 지켜세우는 힌두교인들은 바라따의 일생을 통해 다시금 라마아나의 교훈을 논한다.



라마아나의 클라이맥스인 랑가 전투에서 거인 쯔바카르나를 라마의 원숭이 군대를 무찌르고 있다. (영국국립도서관 소장 그림)



인도 북부 산디니게만에서 열린 뽀쉬메라 축제에서 거인 쯔바카르나로 변장해 연기한 남자에게 관객이 돈을 건네고 있다. /인도 산디니게만=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3부 인도편

6 쯔바카르나와 바라따

■ 쯔바카르나

악마 라바나 동생...상상초월 거구 하누만 군대 제압하며 라마 위협 ‘악의 상징’ 매년 축제 단골 등장

■ 바라따

두번째 왕비 아들로 라마의 동생 왕권 뺏으려는 어머니 계락 거부 형 도우며 14년 헌신...信義 상징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광주⇄목포항 셔틀버스 매일 운항
 매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로 목포항까지 편안하게~
 국내최대 씨스타크루즈호 타고 제주까지 안전하게~ 3만원으로 떠나세요.
셔틀버스+씨스타크루즈호 = 30,000원
 광주출발 06:40 광천터미널 맞은편 목포출발 21:30 여객터미널 주차장
 ※1인 편도요금이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씨월드 고속훼리(주) 우수대리점. 제주배대컴 www.jejube.com 1644-2261

광주출도착 제주도 2박3일 매일출발 155,000원
 [목포, 장흥, 완도, 녹동출발 크루즈 및 쾌속선 왕복]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수목원테마파크 - 트릭아트, 얼음박물관, 5D영상관
2일자 오설록, 코끼리랜드, 카멜리아힐 동백정원, 산방산유람선(현지직불), 올레길7코스, 새연교+새섬, 쇠소깍
3일자 삼나무숲길, 몽골리안마상소 or 매직소 (현지직불), 에코랜드 or 선녀와나무꾼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허브동산, 해녀촌

포함사항 : 광주[목포,장흥,완도,녹동]왕복 셔틀버스(45석 선착순), 왕복선박료, TAX, 차량, 일반 호텔(5~6인실), 일정표내 입장료, 식사(중식2회,조식2회)
 불포함사항 : 가이드팀, 개인비용, 현지직불관광, 자유식식, [완도,녹동]터미널->[완도,녹동]항 이동
 금, 토 출발시 20,000원 추가 / 2인실 이용시 30,000원 추가 3월6일 ~ 7월19일까지 적용됩니다.